

28. 감정 표현하기

28강에서는…

- 1) 태국어의 다양한 전치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 2) 태국어의 다양한 감탄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국의 문화> 태국인의 감정 표현

1. 전치사

1.1 장소/위치 전치사

ที่	티-	~에, 에서
ใน	나이	~안에
นอก	너-ㄱ	~밖에, ~외에
บน	본	~위에
ใต้	띠아이	~아래
หน้า	나-	~앞에
หลัง	랑	~뒤에

คุณอยู่ที่บริษัทใช่ไหมคะ

(쿤 유- 티- 버-리쓰 차이 마이 카)

: 당신 회사에 있는 것 맞지요?

[EBS 초급 태국어]

ໃช່ຄົກ ຕອນນີ້ພມອູ່ໃນທ້ອງປະໜຸມຄົກ

(차이 크랍, 떠-ㄴ-나- 폼 유- 나이 허-ㅇ 뽀라惆 크랍)

: 맞아요, 지금 저는 회의실 안에 있어요.

ໄດ້ຕື່ຂອງດິຈັນມີເອກສາຮຳຄັ້ງ

(따이 또 커-ㅇ 디찬 미- 에-ㄱ까싸-ㄴ 쌈칸)

: 제 책상 밑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ຄຸນຫົວຍເກີບໃຫ້ເຮົາໄດ້ແໜກະ ຕອນນີ້ດິຈັນອູ່ນອກປະບິບ

(쿤 추-아이 껌 하이 라오 다이 마이 카, 떠-ㄴ-나- 디찬 유- 너-ㄱ 버-리岔 카)

: 당신이 챙겨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회사 밖에 있어요.

ໄດ້ສຶກຄົກ ໄມຕ້ອງເປັນຫ່ວງຄົກ

(다이 씨 크랍, 마이 떠-ㅇ 뻔 후-앙 크랍)

: 당연하죠. 걱정마세요.

1.2 시간 전치사

внутри	파-이 나이	~안에, 이내에
ระหว่าง	라와-ㅇ	~ 사이에, ~ 중간에
ใน	나이	~ 중에, ~에
ก่อน	꺼-ㄴ	~전에
หลัง	랑	~후에

[EBS 초급 태국어]

ເຂົ້າ ຕອນນີ້ໄສໂມງແລ້ວ

(ຂໍ-ຫຼິ-ຍີ, ຫຼັ-ຕົ-ນິ- ກຳ- ມົ-ອ ລັ-ວູ)

: 앗, 지금 몇 시야?

5 ໂມງເຢັນແລ້ວ ມືອະໄຮຮູ້ອປ່າ

(ຫ່າ- ມົ-ອ ແມ່-ວູ, ມີ- ອາລາຍ ລົ- ບຸລາວູ)

: 오후 5시가 되었는데, 무슨 일 있어?

ຜົມຕ້ອງສັງໃບສົມ்சຽງຈານກາຍໃນວັນນີ້

(ໂພ ໝົ-ອ ສົງ ບາຍ ສ້າມ ເົໝາ-ລ ພັ-ຍ ນາຍ ວັ-ນິ-)

: 나는 오늘 안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돼.

ບຣີ່ຊັ້ນໃຫ້ສັງເອກສາຮະຫວ່າງວັນທີ 1 ດື່ງ 15 ເດືອນນີ້

(ບຸ-ລິສັ່ນ ຮັ-ຍ ສົງ ເ-ງ-ກຳສັ-ລ ລາວ-ວ ວັ-ຕິ- ລົ- ຖົ- ສັ-ຫ- ດົ-ວ-ນິ-)

: 회사에서 이번 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어.

ຈຶ່ງຕ້ອງສັງກອນເວລາ 6 ໂມງເຢັນວັນນີ້

(ສົງ ໝົ-ອ ສົງ ກົ-ລ ເວ-ລ ວົ-ລ ມົ-ວ ມົ-ວ ແມ່-ວູ)

: 그래서 오늘 6시 전까지는 제출해야만 해.

ຈັ້ນເຮືອຮີບໄປສັງເຄອະ ເຕີ່ວຈະໄມ່ທັນ

(ອົງ-ວັນ ຕັ- ຮີ- ບົ- ບົ- ສົ- ຕັ- ດີ- ອົ- ປ້- ມາ- ຕັ-)

: 그럼 서둘러서 가서 제출해. 이리다가 시간에 못 맞추겠다.

[EBS 초급 태국어]

1.3 수단/도구 전치사

ด้วย	두- [^] 아이	~으로, 을 사용하여
โดย	도-이	~에 의해, ~으로
ทาง	타-○	~에 의해, ~을 통해
ตาม	따-□	~을 따라, ~대로

ผู้จะเดินทางไปประเทศไทยโดยเครื่องบิน

(폼 짜 드 ㅓ-ㄴ 타-○ 빠이 뽀라테-ㅅ 타이 도-이 크르-앙 빈)

: 저는 비행기로 태국에 갈 건데요.

จะใช้เวลาประมาณกี่ชั่วโมง

(짜 차이 웨-ㄹ 라- 뽀라마-ㄴ 까- 추-아 모-○ 카)

: 대략 몇 시간이 걸리나요?

ก็ประมาณ 5 ชั่วโมงครึ่ง

(꺼- 뽀라마-ㄴ 하- 추-아 모-○ 크릉)

: 대략 5시간 반정도요.

จำนวนคงทึงเวลา 2 ทุ่มตามเวลาท้องถิ่น

(응안 폼 콩 텡 웨-ㄹ 라- 써-○ 텁 따-ㅁ 웨-ㄹ 라- 터-○ 틴)

: 그러면 저는 아마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에 도착하겠네요.

ผู้เห็นโฆษณาทางทีวี

(폼 헨 코-ㅅ싸나- 타-○ 티-위-)

: 제가 TV를 통해 광고를 보았는데요.

[EBS 초급 태국어]

คนเก่าหลีกทางข้าวด้วยซ้อนและตะเกียบหรือครับ

(콘 까올리- 타-ㄴ 카-우 두-아이 처-ㄴ 래 따끼-압 르- 크랍)

: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나요?

ถูกต้องค่ะ แต่คนไทยทางข้าวด้วยซ้อนและส้อม

(투-ㄱ 떠-ㅇ 카, 때- 콘 타이 타-ㄴ 카-우 두-아이 처-ㄴ 래 써-ㅁ)

: 맞아요. 그런데 태국인은 숟가락과 포크로 식사를 해요.

1.4 목적/대상 전치사

สำหรับ	쌈 ^{Lamar}	~용의, 을 위한 ~에 대해서, 에 관해서
ต่อ	떠-	~대해서, 향해서
เกี่ยวกับ	끼-아우 깙	~과 관련하여, 에 관한

สำหรับวันนี้ขอ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

(쌈 ^{Lamar} 완니- ㅋ- 커-ㅂ쿤 마-ㄱ 크랍)

: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ที่ให้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อาเซียน

(티- 하-이 커-무-ㄴ 끼-아우 깙 아-씨-안)

: 아세안에 대한 정보를 주셔서요.

จะ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ต่อผมในอนาคต

(짜 뻔 뽀라요-ㅅ 떠- ฟ นาม 아니-ණ)

: 앞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EBS 초급 태국어]

ດីជាន់ឡើងកើខុបគុណមេងកំនកំ

(디찬 에-○ 꺼- 커-ㅂ 쿤 첸 깐 카)

: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드려요.

ທីមាមើយម្រោនឲវិនី

(티- 마- 이-암 라오 나이 완니-)

: 오늘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요.

2. 감탄사

2.1 상대방을 부르거나 알릴 때 혹은 놀랐을 때

ឃើឃ	흐 ㅏ-이	앗, 아잇
ឈើឈ	에	앗, 에엣, 어엇
ូឃី	우이	어머, 아이구
ូីឃ	와-이	으악, 깍

ឃើឃ កិតខែវីនី

(흐 ㅏ-이, ე ㅓ-ㅅ 아래이 ㅡ)

: 앗, 무슨 일이야?

ឈើឈ បែនយ៉ាងខ្សែតិចទរ

(에, 뻔 양 응안 징 러-)

: 응? 진짜 그런 거야?

[EBS 초급 태국어]

ອີ່ຍ ຂອໂທ່ານ

(忧[']이, 커-토-[^]ㅅ 카)

: 어머, 죄송합니다.

ວໍາຍ ຕກົງຈະມຸດເລີຍ

(와[']이, 똑 짜이 뭇 르 ⁻이)

: 으악, 완전 깜짝 놀랐네!

2.2 동의하지 않을 때, 화가 났을 때

ແໜ່ງ	ມະ-	어머, 정말
ຈີ	ຈ	쳇
ໂຮເລື້ອຍ	ຫ-으- ['] 이	에잇, 아잇

ແໜ່ງ ໄຄຈະເຂົ້ອ

(ມະ-, 크라이 짜 즈-[^]아)

: 정말, 누가 믿겠니

ຈີ ດາມກົມ່າຕອບ

(ຈ, 타-^vㅁ 꺽- 마이 떠-ㅂ)

: 쳇, 물어도 대답도 안하고.

[EBS 초급 태국어]

ໄຊ່ເວີຍ ເປັນແບບນີ້ອີກແລ້ວ

(ຫຼັ- ອຸ ທີ-ອີ, ເມື- ບໍ ນິ- ອີ- ຖ ລ້າ- ອູ)

: 에잇, 또 이러네

2.3 아플 때, 속상할 때

ໄອຍ	ອີ-ອີ	아이고
ໄຮ	ຫຼັ-	저런, 아이고

ໄອຍ ເຈັບ !

(ອີ-ອີ, ແຈຶກ)

: 아이구, 아파!

ໄຮ.. ນໍາສະສາດຈຶ່ງເລຍ

(ຫຼັ- ນິ- ສົ່ງສ້າງ- ປັກ ລົ- ອີ-ອີ)

: 저런, 너무 안됐다..

3. 대화: 가정 표현하기

ໜ້າ: ດູ້ນອູ່ທີ່ບຣິ່ຈໍທີ່ໃໝ່ໂໝ່ໂໝ່

(ນິ-ອົ) (ຄູນ ພູ- ຕິ- ບົ- ພິສັ ທ້າ ມາ- ອູ)

: 당신 회사에 있는 것 맞지요?

[EBS 초급 태국어]

ปอนด์: ใช้ครับ ตอนนี้ผมอยู่ในห้องประชุมครับ

(빠-_-) (차이-_- 크랍, 떠-_- 니- 폼 유- 나이 허-_- 오 뽀라_- 쯤 크랍)

: 맞아요, 지금 저는 회의실 안에 있어요.

น้ำ: ใต้ตัวของฉันมีเอกสารสำคัญ

(나-_-) (따이-_- 또 커-_- 오 디찬 미- 에-_- 까싸-_- 쌈칸)

: 제 책상 밑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คุณช่วยเก็บให้เราได้ไหมคะ ตอนนี้ฉันอยู่นอกบริษัทค่ะ

(쿤 추-_- 아이 캱 하이 라오 다이 마이 카, 떠-_- 니- 디찬 유- 너-_- ก 버-_- 리-_ 캐)

: 당신이 쟁겨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회사 밖에 있어요.

ปอนด์: ได้สิครับ ไม่ต้องเป็นห่วงครับ

(빠-_-) (다이-_- 씨 크랍, 마이-_- 떠-_- 오 후-_- 앙 크랍)

: 당연하죠. 걱정마세요.

น้ำ: อันที่จริง ฉันต้องส่งเอกสารฉบับนั้นภายในวันนี้

(나-_-) (안 티-_- 징, 디찬 떠-_- 오 쏭 에-_- 까싸-_- 차밥 난 파-_- 이 나이 완나-_-)

: 사실 저는 오늘 안에 그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ปอนด์: ໂຣ งั้นผมจะเอาไปให้ถึงที่เลยนะครับ

(빠-_-) (토-_- 응안 폼 짜 아오 빠이 하이 텡 티-_- 르_- 이 나 크랍)

: 저런, 그러면 제가 그 장소까지 가져다 줄게요.

〈복습하기〉

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 당신 회사에 있는 것 맞지요?
- 맞아요, 지금 저는 회의실 안에 있어요.

- 회사에서 이번 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 오늘 6시 전까지는 제출해야만 해요.

- 저는 비행기로 태국에 갈 건데요.
- 그러면 저는 아마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에 도착하겠네요.

-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 앞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태국인의 감정표현>



태국에서 흔히 '끄렝짜이(เกรงใจ)'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 외국어로 딱 맞아 떨어지는 단어로 번역이 어려운 단어인데, 태-한 사전에서는 '거리끼다, 사양하다, 염치없다, 어려워하다'라는 다양한 대응어를 제시하고 있다. 상황적으로 부담스럽거나 어려워서 거리끼거나 사양할 때 사용한다. 이처럼 태국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상황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이 아닌 경우, 극한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게 비춰질 수 있다.

특히, 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비록 아랫사람이더라도 그의 잘못을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태국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매우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타이르는 것이 적절하다.

슬픔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일상적이며,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고행의 삶을 마치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자제한다.

한편, 화를 내는 경우에도 한국인과 태국인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국인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쉽게 화를 내지만 쉽게 화를 푸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태국인의 경우 화가 나더라도 처음에는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가슴 속에 쌓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화가 쌓이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이야기 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다.